

「전력기술인」

통권 300호의 기나긴 여정, 그리고, 새로운 출발

전력기술인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여 왔으며, 전력기술인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 온 「전력기술인」誌가 어느덧 2007년 8월호 발간으로 통권 300호라는 눈부신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지나온 길에는 항상 「전력기술인」誌가 함께하여 왔음을 독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력기술인」誌는 1968년 7월 전기기술문화사에서 발간하는 월간 「전기기술」誌의 맨 뒷면에 전기주임기술자 회보를 10면 내외로 합본·발간되었다가 1972년 4월(통권 제1호)에 월간 「전기주임기술자」誌로 창간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 대한전기협회로 통합되면서 일시적으로 발간이 중지되었으나, 1991년 3월 「전기기사」誌로 제호를 변경하여 재창간되었으며, 1996년 11월 29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재탄생하면서

1997년 1월부터 「전기기사」誌에서 「전력기술인」誌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는 협회의 역사로 한줄기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력기술인」誌는 아시다시피 전력기술인을 위한 다양한 기술자료와 정보 그리고 협회 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식을 전력기술인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전력기술인」誌는 매월 60,000권이 발간되어 협회의 회원인 전력기술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관공서 및 학교, 국방부 등에도 제공함으로써 전기업무와 관련된 기술자나 전기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회원인 전력기술인도 회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인」誌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전력기술인 독자들에게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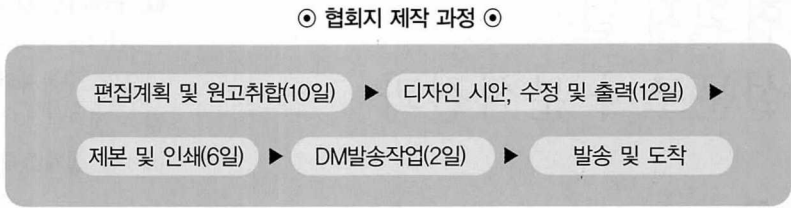
[표] 「전력기술인」誌 배포현황

배부처	평균 부수	배포방법
전력기술인(회원)	60,000부	오프라인
관공서, 학교 등	1,000부	오프라인
기타(비회원)	-	온라인(http://www.keea.or.kr)

현장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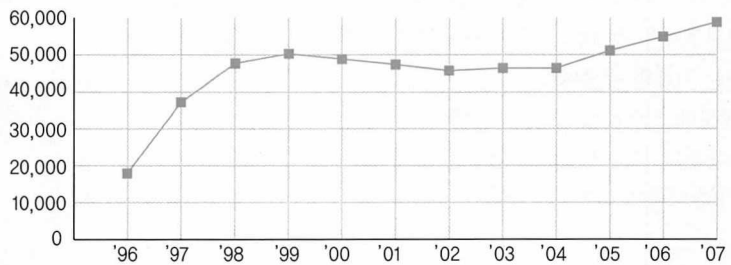
‘현장기술’, ‘기술보고’, ‘상담코너’ 등의 콘텐츠에서는 ‘전기설비의 고조파 장해 및 대책기술’, ‘변압기의 열화기구 및 수명평가’와 같은 기술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전력기술인 독자들에게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지식’, ‘세무상담’, ‘Culture & Travel’과 같은 콘텐츠에서는 전력기술인 독자들이 지식과 교양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세무, 문화 상식을 다루었으며, ‘법령마당’, ‘고시안내’ 등의 콘텐츠에서는 전력기술인 독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변화 추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력기술인」誌는 이번 통권 300호를 기점으로 전력기술인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전력기술인 독자들에게 단순하게 기술과 정보를 전달



◎ 연도별 협회지 발간 현황(최근 10년간 기준) ◎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8월 기준
합계	195,300	374,400	493,390	519,580	481,100	468,377	463,401	470,119	472,765	502,322	559,027	344,653
평균	19,530	31,200	41,116	43,296	40,000	39,301	38,616	39,176	39,397	41,860	46,586	59,555



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협회와 전력기술인 독자간에 양방향으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매개체(Carrier)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기술인과 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전력기술인」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협회지 표지 변경 현황(최근 10년간 기준)



협회지 발간 관련 설문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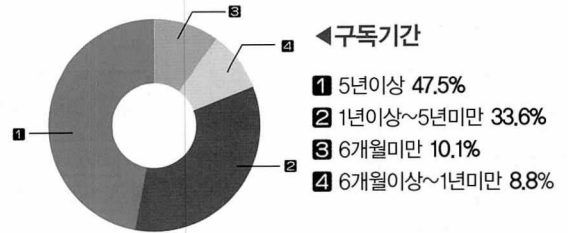
협회에서 발행되는 「전력 기술인」誌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2개월 간에 걸쳐 「협회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총 4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서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분석결과를 참고로 보다 나은 협회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구독기간 및 담당업무는?

5년이상 협회지 구독자가 47.5%로 대부분 장기구독자가 많으며, 구독자의 업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6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전기감리(18.6%), 공사(5.4%), 설계(3.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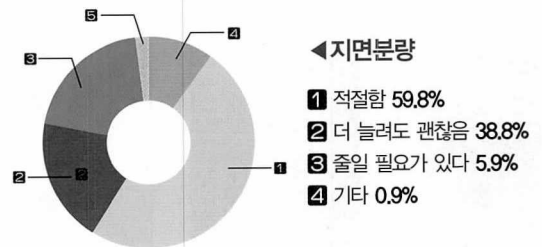
Q. 조사된 구독자의 성별과 연령대는?

협회지의 구독자는 남자가 99.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는 30~40세가 32.4%이며 40~50세는 29.4%, 50~60세는 26.7%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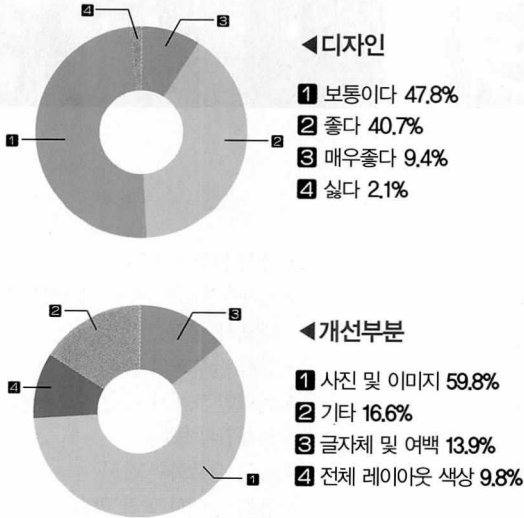
Q. 협회지 지면분량과 광고 지면분량에 대해서는?

협회지의 지면분량과 광고지면분량에 대한 생각은 각각 59.8%와 47.5%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적절한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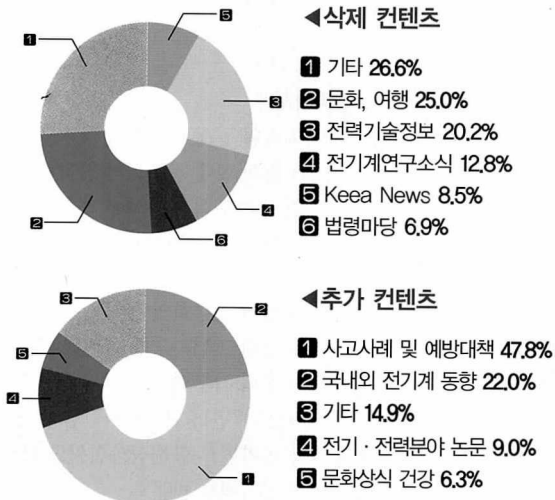
Q. 협회지 디자인과 개선 해야 할 부분은?

협회지의 디자인은 매우좋다 9.4% 좋다 40.7%로 대체적으로 만족함을 알 수 있고, 개선할 부분에는 사진 및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가 59.8%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에는 용지재질 및 크기 또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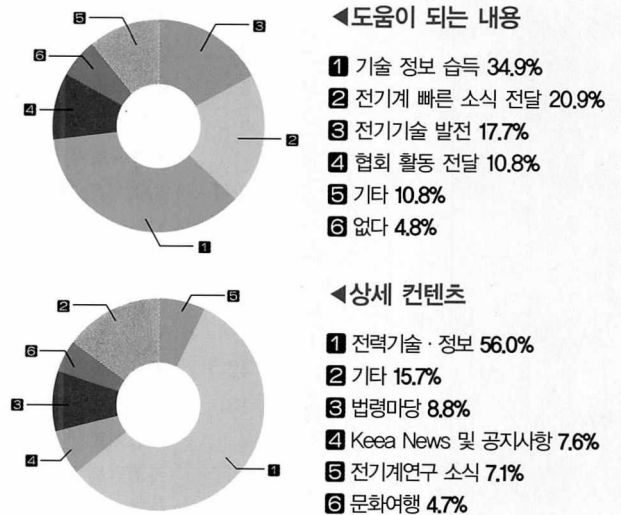
Q. 삭제되어야 할 콘텐츠와 추가되어야 할 콘텐츠는?

삭제되어야 할 콘텐츠에는 기타의견에 26.6%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기타의견에는 삭제될 것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만족함을 알 수 있었으며, 구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는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이 47.8%로 많았으면 국내·외 전기계 동향도 22.0%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Q. 도움이 되는 협회지 내용과 비중을 높여야 할 콘텐츠는?

협회지가 어떤면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34.9%가 기술정보습득이라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20.9%가 전기계 빠른 소식 전달이라고 조사되어 협회지가 정보전달 매체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좀더 상세히 다루길 원하는 콘텐츠는 56%가 전력기술·정보라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전기인의 전문적인 기술지식 향상, 관련정보획득, 사고사례 등으로 대답했으며 두 질문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협회지가 기술지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길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Q. 협회지 격월 발간에 대해서는?

격월발간의 반대 의견이 52.5%, 찬성이 47.5%로 조사되어, 근소한 차이로 반대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